

지역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심민 임실군수, 정부 방문 지정환 신부 기념관 건립 등 국가예산 반영 건의

심민 임실군수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심 군수는 23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찾아 ▲지정환 신부 기념관 건립 ▲임실N치즈 혼연치즈 제조시설 설치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오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과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민 군수는 "지정환 신부 기념관 건립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떠나신 지정환 신부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다"며, "기념관 건립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오랫동안 후대에 길이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현 시점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안사업도 지속적인 방문과 사업 타당성 논리를 통해 관련 부처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충영 기자

남원시, 식량산업5개년 종합계획 실무협의

남원시는 지난 17일과 19일 식량산업 5개년(2019~2023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 농업인 단체, 농업인 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 되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식량산업육성과,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쌀 농가 조직화 및 계열화,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논 타작물 전환계획 수립, 주요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의 효

율적인 운영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안정적인 식량 공급조절을 위해 쌀 산업발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쌀 전업농, 농업인단체, 들녘경영체, 생산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가지고 쌀을 제외한 다양한 품목의 안정적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업경쟁력 육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남원지역에 적합한 쌀 수급조절과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방향, 브랜

드 통합관리, 발작물 경쟁력 육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식량생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준우 남원시 농정과장은 "시에서는 4개 지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4개소), 들녘경영체,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해, 지대별 적합한 고품질 쌀 재배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품목 육성, 안정적 수급 조절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5월초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동규 남원부시장, 시민 소통행정 강화 현장 행정

남원시는 23일 김동규 부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김 부시장은 아영면 구삼마을 찾아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민원봉사 대원들과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봉사활동으로 남원시 자장면봉사단, 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LG전자 하이텔서비스, 한국전기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답답과 120민원봉사대가 건강 및 복지상, 전기·가

전공사 남원순창지사 등 4개 단체와 업체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했다.

또한 남원시 4개 실과소(시민소통실,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담당과 120민원봉사대가 건강 및 복지상, 전기·가

스·농기계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김동규 부시장은 마을 어른들의 안부를 챙기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수렴하는 등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모든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6월말까지 초·중·고 학생 745명 대상 학생건강검진

순창군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순창군보건의료원(원장 정영근)이 오는 6월말까지 관내 초·중·고등 학생 745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생들이 검진기관인 보건의료원을 직접 방문,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와 가정에서 미



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나 신체이상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정영근 보건의료원장은 "학생 건강검진은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또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동시에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섬진강 순창 쏘가리, 전국에 유명세 탄다

채널 A '도시어부' 순창 촬영분 25일 방영

인기리에 방영 중인 채널A 대표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순창군 촬영분이 오는 25일 밤 11시에 방영된다.

이번 방영분은 순창 적성면 신월리 섬진강변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물의 제왕 쏘가리를 잡기 위해 출연자들이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도시어부'는 지난 2017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바다낚시를 통해 60cm 이상의 어종을 낚아올리며, 낚시 애호가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번 방송 주제인 쏘가리는 1급 수나 2급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해, 봉어나 잉어 등 손 쉽게 볼 수 있는 민물고기와 달리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쏘가리는 매향탕은 물론 회 맛이 일품으로, 찾는 이들이 많지만 개체수가 적어 귀하게 취급받고 있다.

지난 19일자로 민물의 제왕 쏘가리 예고편이 유튜브에 업로드돼 5,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송분에는 고정출연진 이덕화, 이경규, 장도연 외 배우 주상욱이 게스트로 출연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한다.

군은 방송이후 시청자들의 촬영기 문의와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 오토캠핑과 야외 문화예술축제를 즐기면서 쏘가리 낚시를 하는 '쏘가리 낚시축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서부지방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1호 등록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경남 함양군에서 산마늘과 고로쇠를 재배한다.

임업인 이명재(40)씨를 관할지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경영체) 1호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청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이후 경영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산림조합 100여 곳에 안내자료를 배포하였다.

지금까지 1일 평균 10건(총 150건)의 경영체 등록 신청 및 600건 이상 문의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면세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등록 경영체에 제공됨에 따라 앞으로 경영체 신청 및 문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부청 관계자는 "맞춤형 정책지원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간담회

남원시 금지면서 진행

남원시 금지면은 지난 22일 10시 면사무소에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

관내 다문화가족 1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가족사랑과 가족존중,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부부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부부교육에서는 동북북지마을 소은숙 원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서로 다른 우리 좋은 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지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기법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갈등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편 조남이 금지면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